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17~5/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종교학자 최준식 교수의 너무 늦기 전에 들어야 할 카르마 강의	최준식	김영사
2	요가 디피카(아헹가 요가 시리즈 1)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3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4	금강경 강의(통섭불교원/김성규)	김성규	통섭불교원출판부
5	깨달음에 이르는 알아차림 명상수행(명상치료5)불교심리학과 위빠사나 수행의 지침서	아날요/이필원 외	명상상담연구원
6	중관학특강:색즉시공의 논리	김성철	오타쿠
7	가시를 거두세요:소나무 스님의 숭늉처럼 속 편한 이야기	광우	쌤앤파커스
8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 68편 수록"법정 스님 원적 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9	요가 수행 디피카(아헹가 요가 시리즈5)완전함 내면의 평화 해탈의길	아헹가,존 J. 에반스	선요가
10	꾼달리니 딴뜨라	스와미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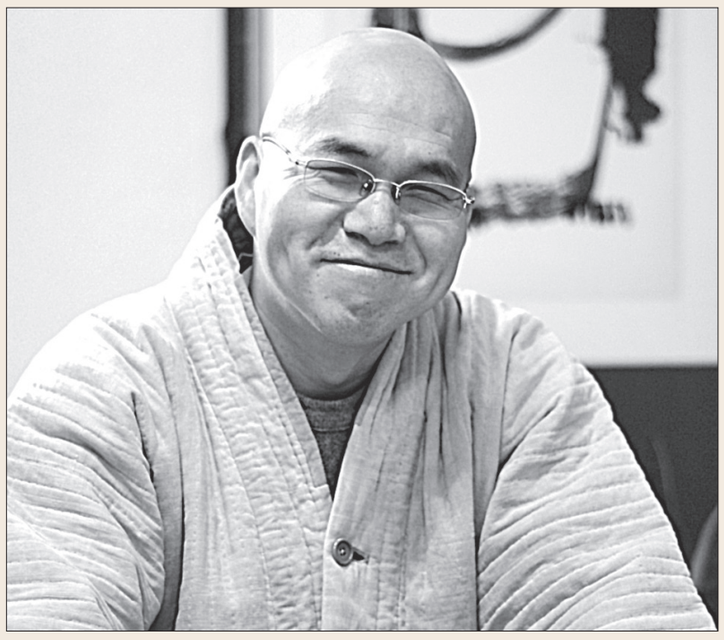
책세상

40년 여정 속 도반에 전하는 안부



문득 돌아보니 늘 그곳에 있었다
현진 지음
담앤북스
1만6천원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청주 마야사 주지 현진 스님. 사진=담앤북스

친구와는 다른 의미 갖는 '도반'
선 · 후배 격을 넘어 성장하게 해
수행자 32명에 대한 잔잔한 회고

누구에게나 도반(道伴)은 지중한 인연이다. '함께 도를 닦는 벗'이기에 그저 웃고 떠드는 친구와는 성격도 다르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전생에 불법(佛法)에 관심이 없는 조띠빨라였을 때 그의 도반이자 도공이었던 가띠까라의 거듭된 권유로 깟사빠 부처님을 친견해 구족계를 받았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겐 한 명쯤 소중한 도반이 있기 마련이다.

일반 재가불자에게도 도반이 있는데, 늘 수행으로 자기점검을 하는 스님들은 얼마나 많은 도반들과 인연을 쌓았을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실천하는 수많은 선 · 후배 스님들과 어떤 말을 나누며 스스로를 반조했을까.

〈문득 돌아보니 늘 그곳에 있었다〉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문사인 현진 스님이 쓴 도반들의 이야기다. 부제인 '나를 응원해준 수도자들의 이야기'에서도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단박에 느껴진다.

"좋은 도반, 좋은 선지식,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수행의 전부를 완성한 것과 다르지 않느니라." 〈잡아함경〉

40년이라는 출가 생활에서 현진 스님을 성장하게 한 건 누구일까. 울퉁불퉁한 삶의 여로에서 스님을 일깨워준 스승과 벗이 된 32명의 수행자 이야기가 잔잔하고 다정하게, 때로는 매서운 죽비로 다가온다.

책에서 서두를 장식한 건 다름 아닌 성철 스님.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이자 8년간 계속된 장좌불와로 후학들에게 지남이 되는 어른이다. 현진 스님은 해인사에서 중노릇을 배우던 사미 시절, 성철 스님을 먼발치에서 처음 본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안거 법문 때마다 "밥값을 언제 할 것이냐"는 사자후를 토해내고, 아이들을 천진불 대하듯 아꼈다는 성철 스님. 현진 스님은 성철 스님을 '미혹의 길을 헤맬 때 바른길을 안내해주는 준엄한 스승'이라고 회고한다.

철없던 시절 해인사 원당암을 불쑥 찾아가 서투른 질문을 던졌음에도 가르침을 준 혜암 스님, 한번 자리에 앉으면 정진이 끝날 때까지 미동도 없었던 '절구통 수좌' 법전 스님, 은사인 월암 스님 등 여러 스승과의 일화도 풀어냈다. 여기에 감성의 목소리 성전 스님, 미소가 아름다웠던 성안 스님, 산사의 정원을 가꾸는 여경 스님 등 각 도반마다 현진 스님이 추억하는 미사여구도 붙였다.

책에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들에 대한 그리움도 진득하다. 시서화에 뛰어나 '삼절 화상'으로 불렸던 설곡 스님에 대해선 "사대는 비록 자연으로 돌아갔으나 스님이 남긴 보장금언(寶槧金言)은 후인들에게 큰 그늘이 돼 오래오래 삶의 지표가 될 것"이라는 조사를 바친다.

그렇게 현진 스님이 말하고 싶은 건 하나.

"그리운 이들에게 자주 안부를 물어라. 생을 사랑하고 축복할 시간이 많지 않다."

현진 스님이 그랬듯 이제 우리 주변 지기지우들을 돌아보고 인연의 감사함을 표할 때다.

▲저자 **현진 스님**은?

현재 청주 마야사 주지로 10년째 산사의 뜰을 가꾸며 수행하고 있다. 5천여 평의 부지에 꽃과 나무를 심어 농사지으며 산사생활의 고요와 기쁨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월간 해인, 불교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으며, 펴낸 책으로 〈수행자와 정원〉 〈꽃을 사랑한다〉 〈좋은 봄날에 울지 마라〉 〈스님의 일기장〉 〈산 아래 작은 암자에는 스님이 산다〉 〈삭발하는 날〉 〈잼있는 스님 이야기〉 등이 있다.

진정한 예술 세계로의 초대



일향 강우방의 예술 혁명일지
강우방 지음
불광출판사
3만2천원

미술사학계의 촉각을 세우게 만든 한 남자가 있다. 그는 50년 넘게 조각, 회화, 공예, 자기, 건축 등 예술 영역의 모든 분야를 연구하며 독창적이고 새로운 논문을 발표해왔다. 학계, 정책, 문화 및 전시 등 예술의 영역에 때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 석 자에 '미술사학자'라는 수식어가 생겼고, 수식어는 이름과 등호가 됐다. 우리나라 미술사학계를 대표하는 원로이자 현역 미술사학자, 강우방이다.

〈예술 혁명일지〉는 삶의 진정성, 연구의 독창성, 학자의 양심이 미술사를 사상사로 끌어올린 강우방의 고백이다.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학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저자는 평생 예술을 읽어왔다.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로 박물관에 입문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5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15년, 그리고 2000년 경주박물관장에서 퇴임할 때까지 예술품과 가장 가까이에서 지냈다.

저자는 치밀하게 작품들을 관찰하고 철학적 성격의 논문을 쓰면서 독학으로 미술사학의 길을 개척한 인물이다. 국내에서는 인도 보드가야 마하보디사 정각상에서 석굴암 본존불의 비례를 찾아 학계에 밝혔고, 왕궁리 석탑에서 발견된 사리기의 조성 시기를 고려시대에서 백제시대로 끌어올렸다.

'한국미술 5000년전' 미국 내 순회 전시 관련 국제 심포지엄에서 가장 어린 나이로 발제했고, 이는 하버드대학 대학원생으로 특별 입학하는 계기가 됐다. 2014년 그리스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그리스 신전 건축의 개념 오류들을 지적했으며, 2015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노트르담 사원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했다.

이렇듯 책은 1970년대부터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세계미술사의 굵직한 이슈들을 드러낸다. 한국 특히 불교미술계에 끼친 영향, 그리고 이면에는 감춰진 이야기 등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또 30톤에 이르는 경주 황룡사 터의 거대한 심초석을 들어 올리는 현장, 일본의 국보 코지마 만다라가 한 개인에게 그 자태를 공개한 사건, 만나기 힘든 석굴암 부처님을 문화유산 사진 전문가 안장헌 사진작가의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저자가 직접 찍은 15TB에 달하는 예술품 사진 중 엄선한 사진과 이를 채색하며 분석한 도판들은 하나의 작품과 같다.

임은호 기자

"넌 혼자가 아냐"…곁을 지키는 위로



내가 여기 있어요
크리스토프 앙드레 지음
안해린 옮김
불광출판사/1만9천원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위로'를 치면 가장 먼저 뜨는 자동완성 검색어는 '위로가 되는 글귀'다. 시에서, 소설에서, 유명인의 말에서 위로가 되는 글귀를 찾은 누군가는 위로가 듣고 싶었던 사람일까, 위로를 하고 싶었던 사람일까.

폐암으로 죽음의 문턱에 다녀오며 위로의 중요성을 느낀 저자, 크리스토프 앙드레의 말에 따르면 다음의 모든 것은 위로가 될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단정 짓지 않되, 괴로움에 세상과 멀어지지 않게 언제든 내가 여기 있으면서 돕겠노라 말해주는 것. 슬픔과 비탄에 잠식되지 않도록 한 번씩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일. 부드럽게 어깨를 다독이는 손.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 당장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더라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는 고통 받고, 늙고, 죽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자 크리스토프 앙드레는 이렇게 우리 모두 알지만 애써 외면하던 진실을 대놓고 드러낸다. 그가 말하는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인 고통, 노화, 죽음은 그 표현대로 인간의 삶에서 어쩔 도리 없이 마주칠 괴로움의 원천이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홀로 괴로움을 감내할 필요는 없다.

〈내가 여기 있어요〉는 그 해답을 관계에서 비롯한 위로에서 찾는다. 온유함과 형제애가 담긴, 일시적인 위안을 초월하는 위로는 해결책이 없는 삶의 시련이라는 폭풍우와 공존하는 방법이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막막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괴로운 시간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또 거기 있어 주는 타인의 존재감, 이해와 공감으로 묵묵히 곁을 지키는 위로는 운명의 붉은 실처럼 우리의 삶 내내 이어진다.

저자는 슬픔과 고통의 원인과 증세가 다양한 만큼, 위로의 근원 역시 무수히 많아질 수 있음을 알려준다. '이 책이 위로에 관한 책에 머무르지 않고 부디 위로하는 책이 되기를' 기원하는 그의 말대로 〈내가 여기 있어요〉는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에게도, 위로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도 도움을 주는 가이드이자 위로의 원천이 될 것이다.

임은호 기자

